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G D P	512억 달러 (2012년)
인구	29.80 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1,717달러 (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um
대외정책	CIS 국가들과의 기존 유대관계 유지, 대미접근 등 독자적 외교노선 추구	환율(달러당)	1,891 (2012년)

-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98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천연가스(1.1조 m³), 원유(6억 배럴), 금(1,700톤)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되었고, 2009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친정부 정당들이 압도적인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공고한 1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추진과 맞물려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8.1	8.5	8.3	8.0	7.0
재정수지 / GDP	0.2	0.3	0.4	0.4	-0.1
소비자물가상승률	10.6	12.1	13.3	14.3	10.1

자료: EIU

□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하락세

- 2010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인 금, 면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의 8.1%보다 다소 높은 8.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세 유지,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정부의 실질 임금 상승 및 사회보장성 지출확대에 따른 내수활성화의 영향으로 8.3%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8.0%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역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부족 및 상품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7.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지출 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0.4%의 흑자를 기록했음.

- 2013년에는 정부의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 2014년 총선 및 2015년 대선을 대비한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확대, 2014년 NATO 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한 국방 및 치안 비용 부담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0.1%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자리 수 유지

- 2011년 우즈베키스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숨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통화 공급량 증가 등으로 13.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임금인상, 카자흐스탄의 곡물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 가격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14.3%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역시 숨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정부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1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총투자는 GDP 대비 24% 수준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도로 건설 및 재건 등 인프라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총투자증가율을 넘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GDP 대비 국내총투자는 2009년 30%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하락해 2011년 이후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우즈베키스탄재건기금(UFRD)을 통한 재원조달, 정부예산 증대 등을 통해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였음. 2011년 10월에는 수출잠재력 확대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196개 프로젝트에 62.4억 달러를 투입하는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에는 370개 이상의 전략적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된 정부 투자프로그램에 1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소요 재원의 75%는 국내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 * 우즈베키스탄재건기금(UFRD: 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2006년 5월 대통령령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경제구조조정 및 현대화지원,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대출 제공,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외자유치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 에너지, 면화,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15년 산업발전 계획 등을 통해 산업 다각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아 러시아의 경기변동에 따라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기준 주요수출대상국은 러시아(20.6%), 카자흐스탄(14.6%), 터키(13.8%) 순이며, 수입대상국은 러시아(20.6%), 중국(16.5%), 한국(16.3%) 등 임.

□ 낙후된 금융환경

-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낙후되어 있으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의 금융시장은 발달 수준이 미미하며, 은행 산업은 중앙은행과 30개 상업은행(3개 국영은행 포함)으로 구성되어, 상업 은행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처럼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규제가 많고, 은행이 정부 정책의 이행기관이자 기업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있음.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정부채권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은행들의 신용등급도 B등급 수준이어서 외화신용한도(Credit Line)가 ECA 등 원조 금융기관 외 몇 개의 유럽/이슬람계 상업은행으로 제한적임.
- 정부의 과도한 외환 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통상 6~12개월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들은 제품 및 원부자재 수입, 결제대금확보, 과실송금 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불안정한 기업경영환경

-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 각 부분에 대한 대통령 측근들의 이권 참여와 부정부패가 계속되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7위/183개국(2011년), 170위/174개국(2012년)를 기록하여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소련 시절의 잔재가 남아 있어 중앙집권적인 정부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관료제의 폐해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법률 및 제도의 미정비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잦은 법규 개정,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과도한 행정개입 등 법적인 안정성이 낮아 정책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는 154위/185개국(2012년)에서 154위/185개국(2013년)로 순위 변동 없으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12년 8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장비의 불법사용을 이유로 러시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MTS의 직원을 체포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음.
 - MTS는 자사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의 이면에 우즈베키스탄 정치 엘리트들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2011년에는 영국기업인 옥수스골드(Oxus Gold)는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12년형을 언도받았고, 50%의 지분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파트너 기업인 아만타이타우 금광사업(Amantaytau Gold fields mining operation)에게 강제로 매각 당함.
 - 강제매각과 관련하여 4억 달러 규모의 국제소송이 진행 중이며, 옥수스골드 측의 변호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위를 “금광 산업에서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산을 탈취하기 위해 벌인 조작극”이라고 비난함.
- 이밖에도 터키계 슈퍼마켓 체인점인 데미르(Demir)와 투르크아즈(Turkuaz), 인도의 섬유가공 기업인 스펜텍스(Spentex Industries),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sberg) 등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리적 요충지

-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천연가스(1.1조 m³), 금(1,700톤, 세계 10위), 원유(6억 배럴)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또한 인구 2,98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011~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으로 외자유치 확대 계획

- 2010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해 473억 달러 규모의 총 5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유망분야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계획에 따르면 전체투자액의 68% 가량을 외국인 투자 및 국제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 2011~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은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2010년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까지 확대되고 관련 수출비중도 51%에서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원유, 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유치 유망분야는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 산업 등임.

□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 발표

-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2011~15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자본증대와 민간자본 유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증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 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CIS 국가 중 투자유입이 가장 부진한 국가 중 하나이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2004년 이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했음.
- 그러나, 2011년 외국인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14.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위기, 외화 환전의 어려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맞물려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 추이(억 달러) : 8.4억 달러('09) → 16.3억 달러('10) → 14.7억 달러('11) → 10.9억 달러('12)

- 2011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에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시 면세혜택을 투자금액이 최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면세기간이 차등적용 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제공되는 단일사회보장세(Single Social Payment) 면세기간을 기존 2011년에서 2014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2012년 4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을 발표함.
 -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관련 조세법령이 개정되어도 10년간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인프라발전세, 사회보장세, 통합세 등 제반 세금을 최초 등록 당시 세율을 적용(세율 인하의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 적용)하기로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12월 나보이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고 이곳에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Free Industrial and Economic Zone)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안그렌 특별산업단지(SIZ: Special Industrial Zone)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지역산업 발전,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GDP 대비 총수출은 40% 대 초반 수준 유지

- 2012년 상품 수출은 식품류, 원면, 기계설비류의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1월 대통령 결의에 따른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상품의 불법반입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불법 밀수입 억제 및 국내기업의 생산 확대를 통해 2013년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7.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 수출증가율 추이 : 5.6%(2010) → 13.6%(2011) → -4.1%(2012) → 7.6%(2013, 예상)

- GDP 대비 총수출은 2008년 50.3%를 기록하였으나, 총수출의 감소로 2009년 39%를 나타낸 이후 40% 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2013년 GDP 대비 총수출은 4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879	4,173	5,329	4,979	5,825
경 상 수 지 / G D P	2.6	10.7	11.8	9.7	10.3
상 품 수 지	2,119	3,604	4,065	3,430	4,012
수 출	10,495	11,084	12,595	12,080	13,002
수 입	8,376	7,480	8,530	8,650	8,990
외 환 보 유 액	10,358	11,024	13,533	13,939	
총 외 채 잔 액	6,545	7,741	8,380	8,958	9,673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6	19.9	18.5	17.5	17.1
D S R	5.2	3.2	2.7	4.3	2.5

자료: IMF, OECD, EIU.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1년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의 가격 상승과 자동차 수출호조, 해외근로자의 송금유입액 증가 등으로 GDP 대비 11.8% 수준(53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 2012년에는 금과 면화가격의 상승세 둔화,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경제 성장세 둔화,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설비·자재·부품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9.7% 수준으로 다소 축소되었음.

□ 숨화 가치 하락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가치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키르기즈 유혈사태 발생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2010년 평균 1,586숨/미달러를 기록함.

- 2011년 평균 숨화가치는 1,714숨/미달러를 기록했으며, 통화당국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숨화의 가치하락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평균 숨화가치는 2011년보다 약화된 1,891숨/미달러이며, 2013년 2월 정부가 새로운 송금제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2013년 이후에도 환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연평균 환율 추이(Sum/US\$) : 1,320(2008) → 1,466(2009) → 1,586(2010) → 1,714(2011) → 1,891(2012)

□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

- 금융시장의 발달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은 외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총외채잔액이 2011년 83.8억 달러에서 2012년 89.6억 달러로 증가 하였으나,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한 GDP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2012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1년 2.7%보다 다소 상승한 4.3%를 기록했으나, 총수출의 회복으로 2013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회주의적 금융관행과 정부통제 등으로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편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카리모프 대통령 장기집권체제 지속

- 1991년 이후 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7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해 당분간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이 75세의 고령이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급작스럽게 퇴진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상원의장(대통령 임명직)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후계구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12월 135석을 두고 실시된 총선에서도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53석,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Milliy Tiklanish) 31석 등 친정부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음.
-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요 정부 요직을 모두 지지자들로 선임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해 현 정권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2014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2015년 차기 대통령 선거도 이변이 없는 한 현 정권의 승리가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위험 잠재

-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부진한 경제개혁 성과, 더딘 민주화 과정, 극빈층의 내재된 불만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세력, 소수민족, 종교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어 사회혼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특히,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 11월에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철로 폭발 사건을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간주함.

*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세력 연합체로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

3. 국제 관계

□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점진적 개선

- 2005년 안디잔 지역의 반정부 시위 진압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추진에 따른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양국이 대 테러 전쟁에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됨.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4월 3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행 비군수물자의 우즈베키스탄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협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함.
- 2012년 8월에는 타슈켄트에서 카리모프 대통령과 로버트 블레이크 미 국무부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만남을 가졌으며, 2014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앞두고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EU와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개선이 더딘 상황으로, EU는 아동 노동 착취 등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현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

-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개통하는 등 꾸준한 자원외교의 결실을 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서 탈퇴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접국가와의 긴장 지속

- 2010년 6월에 발생한 키르기즈 유혈사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여전히 국경 확정 분쟁과 민족 분규가 발생하고 있어 키르기즈와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국과 수도 및 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세력의 활동반경이 우즈베키스탄 국내로까지 확대될 위험도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인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면화, 금 등의 수출 수입으로 공적외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과거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액 규모(2012년 말 기준 139억 달러)를 감안했을 때 2012년 기준 GDP 대비 17.5% 수준의 총외채잔액 90억 달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도 7.0% 수준으로 낮은 편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3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4.2억 달러(단기 1.4억 달러, 중장기 2.8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단기 170만 달러로 전체의 0.4%를 기록하고 있어 공적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유지

- OECD는 2008년 1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외채 상환부담 경감,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출상품 가격 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함.

<표 4>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우즈베키스탄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439	1,719	1,767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
수 입	22	40	42	질소비료, 우라늄, 천연섬유사
합 계	1,461	1,759	1,80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2009년 3,274만 달러, 2010년 4,073만 달러, 2011년 5,325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 갔으나, 2012년 1,888만 달러로 크게 감소함.
- 2013년 3월말 기준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는 총 214건 (신규법인수), 6.2억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등임.

V.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2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 등으로 투자도 활성화 되고 있음.
-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체제 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후계 구도와 테러위험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음. 대외적으로는 지역 안보협력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도 가스 수출 등을 매개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인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1차 상품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과 같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낙후된 금융 환경과 부정부패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편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외자유치, 산업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상환태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OECD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